



## 직원해외 연수교육을 함께하고

본 연수기는 협회 연수자들의 초행길을 안내하시기 위해 연수기간동안 함께 해주신  
윤교수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윤 임 중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北九州産業醫科大學에서 개최되었던 제 6차 한일산업보건학회를 마치고 4월 5일 6시경 가톨릭醫科大學 이광목교수부부, 최병수전무이사, 박영욱계장 그리고 필자가 大阪공항에 나간 것은 7시 30분, 이곳에 도착 예정인 산업보건협회 국장 12명을 포함하여 13명을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도착 예정시간이 가까와지자 서울발 大阪行 KAL은 20분씩 두번이나 늦추더니 8시 20분경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광판의 알림이었다. 공항에는 우리 일행 이외에 京都工場保健會의 乾전무님과 다른 직원이 마중나와 주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낮익은 모든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밤 9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우리 모두의 일행은 산업보건협회측에서 마련한 버스와 승용차에 분승하고 숙소인 New Kyoto 호텔로 향하였다. 공항에서 이곳 京都의 숙소까지는 한시간 거리, 기내에서 간식만 하였을 뿐인 일행의 배가 비어 있을 것이었지만 마땅히 식사할 곳이 없어 숙소로 향하였다. 날이 어둡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다른 이곳 풍물을 즐

길 수 있었을 것이지만 어둠속에 번쩍이는 불빛만이 스쳐가니 고국의 그것과 다름을 느끼지 못하였다.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20여명의 일행이 자리를 같이 하니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는데 乾전무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과 정성스런 추대에 가슴이 뿌듯하였다. 멀지는 않으나 그래도 언어와 풍속이 다른 이곳에서 담소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는 일은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밤늦게 각자 방에 돌아왔지만 삼삼오오 모여 밤을 잊는다. 국내에서의 여행도 그리한데 하물며 나라를 달리한 터인데 어찌 일상업무에서의 해방감이 즐겁지 않으리.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처럼 바지가쟁이를 걸어 올리고 신발을 벗은 채 복도를 오가는 일행이 없는 것을 보면 나라의 긍지와 자부심을 해하지 않으려는 모두의 노력이라.

도착 다음날인 4월 6일은 예정대로 奈良를 방문하였다. 京都에서 한시간쯤 떨어진 옛도읍지 奈良, 4월의 따뜻한 햇볕사이로 이들의 생활이 들여다 보인다. 우리는 이곳에 왜 연수를 온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풍요롭게 한 것일까,

넓지도 않은 섬나라인데, 오일 달리가 펄펄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지구상의 재벌로 목에 힘을 주게 한 것일까? 뜨내기 여행자의 눈에 깊숙히 자리잡은 이들의 내면 세계가 비칠까 보나. 奈良에서는 시내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法隆寺와 茶道院 등 몇군데를 관광하였다. 法隆寺는 우리의 문화와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절이다. “역시 다르군요.” “무엇이?”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사실이다. 휴지가 굴러 다니지 않는 거리다. 담배꽂이가 짓이겨진 거리도 아니며 하수구에 쓰레기가 쌓인 골목이 아니고 깨끗이 치워진 그래서 침 한방울 흘릴까 염려되는 그런 거리다. 가정용 쓰레기는 색깔을 달리한 비닐봉지에 담겨져 문앞에 놓여져 청소원의 손을 기다린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그러나 거리는 우선 깨끗하고 불일이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어둑한 곳이 없어 정이 덜가는 것은 사실이나 깨끗해서 나쁠 것은 없으려다. 치우는 사람보다 버리는 사람이 더 많은 서울거리와 버리는 사람은 없어도 치우는 사람이 있는 이곳 거리와는 다를 수 밖에 없으리라. 거리를 이토록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 이유라고 치부해 두자.

일본의 茶道는 그들 나름대로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는 전통이다. 이곳 奈良의 茶道院은 170여년전 돈푼이나 있는 누군가가 벼들을 불러 차를 마시며 세상사를 이야기 하기 위하여 지어진 집이라 한다. 조그마한 동산에는 당시 심어진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가 즐겨 이용했다는 객실은 시내 저편으로 몇개의 산봉우리가 흰하늘에 들어오는 말하자면 전망이 시원한 곳에 위치한 집인데 일본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다. 무식한 소견으로는 이런 곳도 관광의 대상이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서울이었다면 옛날에 개조하여 갈비집으로 변했음직하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하찮은 것도 기록

하여 남기고 정성드려 보존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터이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씨도 이들에게 부를 갖다주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치부해 두자. 4월 7일은 京都市내 관광이었는데 한국말에 능숙한 일본인이 안내를 맡았고 최전무님과 필자는 전에 일별한 바가 있어 행동을 달리하였다.

4월 8일은 일요일이지만 京都工場保健會를 견학하는 날이다. 乾전무님은 벌써 몇번씩이나 기구들이 정돈되지 않은 것을 보이게 되어 매우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현재의 건물에 잇대어 6월 준공예정으로 증축을 하는 중이라 복도 여기 저기에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일요일인데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 우리 일행을 맞기 위한 것인줄 알았는데 격주 일요일은 정상근무라는 후문이었다. 근무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손을 놓아버리는 요즈음의 우리네 사정과는 전혀 다른 면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게다. 춘투는 춘투이고 할일은 해야 한다는 이들의 태도가 이들에게 부를 갖다주는데 어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 乾전무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한일간 산업보건의 발전방향을 피력하면서 특히 젊은층의 연수교육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산업보건의 날로 발전하는 것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이 있는 운영체계에 있으며 의과대학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무척 부러운 일인데 일본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保健會의 中田常務는 운영실태를 소개해 주었다. 保健會의 상근직원은 170명이었고 시간제 근무직원이 70명으로 모두 240명이 보건회가 입회원 570개 사업장 근로자 7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간 예산은 약 37억엔이었다. 그중 직원들의 교육연수 예산이 2,000만엔이었다. 매일 약 200명의 외래환자를 접하고 있으며 성인병종합건강진단은 매일 큰 차이를 보여 5~70명이었는데 이날도 많은 사람들

이 대기실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업환경측정과 직업병진단, 그리고 성인병진단에 필요한 각종 의료장비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 최첨단 의료장비로 알려진 MRI를 구입할 예정이라니 부러울 수 밖에 없다. 中田상무는 보건회의 각과에서 마련한 중단기사업계획과 직원연구발표회를 소개하였는데 우리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4월 9일에는 關西勞働衛生技術센타를 방문하였다. 본 센타는 京都工場保健會와는 달리 연수교육이 주업무였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를 합격한 위생기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의무적으로 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수준이 매우 높으며 실질적이라 한다. 오후에는 大阪城을 구경하고 日本橋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6시에 어느 건물 앞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이날은 保健會직원 2명이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자유시간을 갖기전 이들을 돌려 보내는데 적지 않은 애를 먹었다. 우리끼리 시간을 갖고 京都에 들어가겠다는 말에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들의 오늘 임무는 우리를 안내하고 무사히 京都의 숙소까지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大阪 환복관에서 헤어지자니 걱정이 태산같은 것이다. 그들도 모르는 한국식당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기차를 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어쩔 것인지, 그들의 염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지극한 배려가 진실로 미안했고 미아가 될 수는 없는 일, 사정 사정 그들을 이해시키고 뽀뽀히 헤어지니 나중에야 산수갑산을 갈망정 흥가분한 마음이었다. 약속된 6시보다 늦게 일행은 한곳에 모였다. 이제부터 한식집을 찾아가는데 어디쯤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리 없다. 몇번을 물어 “難破”라는 곳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지만 이역의 어디쯤에 한식집이 있을 것인지, 일식집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다. 마침 저녁손님들이 밀려 들어 종업원들이 정신없

이 뛰어 다닌다. “미안합니다. 한국음식점을 찾는데요.” 중년의 그는 상임지도책을 이리 저리 뒤적이며 한참이나 찾더니 “이책에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20분쯤 걸어가서 다시 물어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식당에 밥먹으로 온 손님도 아닌데, 보아하니 일본 사람도 아닌데, 그것도 이 바쁜 시간에 알지도 못하는 한국음식점의 위치를 알려 달라고? 모른다고 대답하면 그만인 것을 그는 최선을 다했고 물어본 사람이 미안할 만큼 친절을 베푼다. 비록 이 주인만이 아니다. 길을 물어도 그렇고 보석가게에 가서 철물점을 물어도 이들은 있는 친절을 다 베푼다. 알든 모르는 사이든, 내 손님이든, 내 손님이 아닌데 최선을 친절을 베푼다는 것. 이것도 이들에게 부를 안겨주는데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묻고 또 물어 찾아간 “링가亭”이라는 한식당에서 먹은 소주와 갈비와 김치는 별나게 맛이 있었고 京都의 숙소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쯤이었다.

마지막 밤이라서인지 일행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교통질서 하나는 기막히게 지키드군요. 있는 동안에 교통순경 한사람 봤어요.” 사실이다.” 미련스러울만큼 양보한다. 앞지르기, 끼어들기, 어르신네 가신다고 사정없이 눌러대는 경적소리, 이거야 서울에서나 경험하는 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그래서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하나 뿐인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이들의 차를 모는 태도는 차를 모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 구석에 깊이 깊이 스며 들었음이고 이러한 생활모습이 이들에게 또 부를 주었음이라.

이번 연수일정중 京都工場保健會의 乾전무님과 中田상무를 비롯하여 지극한 정성과 후대를 아끼지 않은 직원 여러분에게 몇번이고 깊은 감사를 전하며 불충분 하였던 안내를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신 국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